"보우국사 열반지 소설암 찾았다"

경기 가평 설곡리서 유력한 단서 '石鍾' 발견
마을엔 "옛부터 소설암 있었다" 구전 전해와

7백년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한국불교의 중흥조인 태고 보우스님의 열반지 소설암이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에 위치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실은 최근 가평문화원(원장 신현정)이 소설암터로 추정되는 곳에서 석종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문화원측과 관계자들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알려졌다.

지금까지 보우스님(1301~1382)이 '소설산에서 입적했다'는 사실은 〈태고록〉등 각종 사료를 통해 입증됐으나 정작 그 열반지가 어디였는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은 없었다는 점에서 보우스님의 열반지 확인작업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보우스님의 열반지로 추정되는 곳은 설곡리 691번지 일대. 설곡리의 옛이름이 소설리였다는 점과 이 일대가 절안(절이 있는 집)이라는 명칭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곳에 소설암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94년 가평문화원에서 발간한 〈가평의 자연과 역사〉에는 보우스님이 태어났다는 익화현은 현 설악면 설곡리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정강록도 '양근(지금의 양평)땅에서 북쪽으로 40여리 정도에 소설이란 부락이 있는데…'라며 설곡리를 기전십승지(畿甸十勝之地)로 적고 있어 위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우스님이 임제종 제19대 법손이 된후 귀국해 4년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보임했다는 소설암터로 추정되는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691번지 일대(점선안에 소설암 것으로 추정되는 석종(사진 왼쪽)이 놓여있다).

더욱이 이곳이 소설암터였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은 설곡리 691번지 가옥 20여m 윗쪽에 위치한 축대의 가시덤불 속에서 발견된 석종이다. 30여년전쯤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종은 이 일대에 소설암외에 다른 사찰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소설암 석종일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곳에서 태어나 20여년전부터 지금까지 석종을 지키고 있다는 주민 박창신씨(34)는 현재 살고 있는 집(691번지)이 '절안'으로 불려왔다는 것과 이곳이 스님이 살았던 곳이라는 얘기가 그전부터 전해내려왔으며, 석종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곳이 소설암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박형진옹(82세, 설악면 설곡리 688) 역시 "오래전부터 이곳에 소설암이 있었다는 얘기가 마을에 전해내려오고 있다"며 "석종과 기와장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소설암터가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석종은 기단과 사리함이 없는데다 아직까지 학계에조차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연대측정등 정확한 검증이 없는 상태여서 이곳이 소설암터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20여년 전부터 소설암터를 찾았다는 이병호박사(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는 "양근군수가 사리를 받아 사나사에 봉안했다는 기록과 사나사에서 소설암터까지의 거리가 30여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미원장이라는 지명이 미원이라는 지명으로 현존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소설암터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신현정 가평문화원장도 "동국여지승람에도 소설암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경기읍지〉에도 미원장(익화현내의 한 지명)소설암이 존재했다는 기록과 미원장이 미원현으로 승격됐다가 다시 양근군에 합병됐다는 기록이 있어 이곳이 소설암터가 맞는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다만 발굴과 학술적 탐사등 보다 명확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평=한명우 기자

대승사 응진전 한국사찰의 주련

권영한

觀音竹繞菩提路
(관음죽요보리로)
羅漢松圍般若堂
(나한송위반야당)
立絕俗塵憑慧劍
(입절속진빙해검)
生起苦海有慈航
(생기고해유자항)

春水淨如僧眼碧
(춘수정여승안벽)
遠山濃似佛頭青
(원산농사불두청)
萬壑松聲警鶴夢
(만학송성경학몽)
一廉月色映禪心
(일렴월색영선심)
法雨慈雲沾如澤
(법우자운첨여택)
松風水月見精華
(송풍수월견정화)

중생계 적시는 자비의 비구름 노래

관음은 대나무로 둘러싸인 보리로에 계시고
나한은 소나무에 둘러싸인 반야당에 계시며
세속의 번뇌망상 지혜의 검으로 모두 끊고
모든 중생을 고해에서 자비롭게 구하시네.

봄 개울물 스님의 푸른 눈 같이 맑고
먼 산 경치는 부처님의 푸른 머리처럼 짙도다.
산골 솔바람 소리에 잠자던 학 꿈을 깨고
주렴에 어린 달빛 선승 마음을 밝혀 주네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 연못의 물처럼 중생을 적셔 주고
솔바람과 물에 비친 달 속에도 사물의 정수가 깃들었네.

해설 대승사 응진전 주련은 두가지의 내용으로 게시되어 있다. 앞의 내용이 관음보살과 나한의 자비를 칭송한 것인데 비해 뒤의 것은 매우 서정적인 묘사로 부처님의 자비를 일깨우고 있다.

앞의 내용에서는 관음보살이나 여러 나한들이 속세와 단절된 곳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은 보리로 반야당이 모두 속세를 초탈한 속세 즉 성불도를 이룬 자리에서의 속세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속의 번뇌망상에 끄달림이 없는 곳에서(그곳이 보리로이고 반야당) 고해의 중생을 구해 준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뒤의 서정성과 선기가 넘치는 싯구는 화사한 봄날 분득 깨달음의 세계를 훼뚫어본 젊은 수행승의 환한 얼굴을 연상시키는 것만 같다. 스님의 눈같은 개울과 부처님의 머리같은 산자락들 학이 꿈을 깨어나는 솔바람 소리 달빛과 선승의 마음 이들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법우와 자운이다. 법우란 중생을 교화하여 덕성스럽게함을 뜻하고 자운은 구름이 온 하늘을 덮듯 부처님 자비가 두루두루 미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산사의 한가롭고도 유려한 풍경 속에서 마음을 밝힌 선승은 자비와 진리의 비가되고 구름이 되어 중생계를 적셔 준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 경지를 솔바람 소리와 물에 어린 달에서도 능히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美 비트문화 정신세계는 불교"

트리싸이클지 5·60년대 비트인물 재조명서 밝혀

◇잭 케로악

◇알렌 긴스버그

◇조안 키거

세계적인 불교학술지 〈트리싸이클〉이 최근호에서 '불교와 비트세대'(Buddhism and Beat Generation)라는 주제로 1950년대부터 1960년대초까지 미국 비트문화의 르네상스를 일궈낸 인물 잭 케로악, 알렌 긴스버그, 조안 키거 등을 재조명해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는 편집위원 케롤 톤킨슨의 비트세대의 반추와 더불어 이들 3명의 작품, 인터뷰, 일기 등이 실려있다.

케롤 톤킨슨은 '불교와 비트세대'의 서언을 통해 "냉전속에서 극대화된 소비문화와 핵공포에 압박 받았던 미국의 젊은이에게 잭 케로악의 소설 〈진리의 법〉이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고, 불교가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진단해 불교와 비트문화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지적했다.

알렌 긴스버그(시인)는 "불교와 비트문화에는 물질적·현상적인 것보다는 인간에게 더욱 관심을 갖는 공통점이 있다. 불교의 가르침인 '찰라의 무상함'은 기독교나 마르크스주의와는 사뭇 다르지만, 비트세대는 관심을 가졌다"라고 트리싸이클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또한 여류시인 조안 키거는 "비트세대에게 있어 불교는 심라만상의 거처였다"며 불교가 비트세대의 안식처였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잭 케로악(소설가)은 그의 소설 〈진리의 법〉에서 "네바다 주에서 발굴된 화강암에는 빙하시대를 견디는 침엽수림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이처럼 모든 힘을 진리(Dharma)의 초점에 맞출 때, 풍족한 미국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라며 주인공의 입을 벌려 토로했다. 또한 레비 에쉬(소설가)는 "비트세대는 불교가 깊은 철학적 사유를 요구하는 고대 동양의 전통사상으로 보였다"고 지적하고, "50년대 미국 비트문인들 중에서 잭 케로악의 불교우화 〈진리의 법〉에서 불교를 사상적 배경으로 삼았던 비트세대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 '인간에 대한 관심' 매료
> 젊은이들 안식처 역할
> 불교 미국 정착하는 계기도

한편 비트문화의 정신은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 인터넷에는 비트문화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아 비트문화를 소개해 알려주는 리터러리 킥스(Literary Kicks)라는 웹사이트가 있으며, 20세기 비트문화의 중심인물인 알랜 와트의 개인 홈페이지도 개설되어 있다.

오종욱 기자

"고려말 함허스님 空사상 정토신행·해탈의지 복합수용"

허정희 강사 "자연과 조화된 삶 강조" 주장

고려말 승려 함허(涵虛)의 사상은 '깨달음'과 '공사상' '죽음'에 대한 구조적인 인식체계 속에서 정토신행(淨土信行), 해탈의지 등을 복합수용한 탁월한 道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동국대 허정희 강사(국민윤리)는 최근 발간된 '95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제25집'에 실린 '함허의 사상적 특성'이라는 논문에서 함허의 깨달음, 공사상, 생사관 등의 고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함허의 깨달음에 대한 관점 역시 공사상을 바탕으로 천지만물을 깨달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허씨는 주장했다. 깨달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없으며, 인간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자연이라고 표현하고 자연과 조화되지 못하면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깨달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주진리에 부합된 인간적 삶의 제시며 우주진리에 부합될 때 인간적 고통에서 벗어나 원융무애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함허의 불교사상은 당시대에 유학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삶의 근원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空사상 고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허씨는 함허의 저서 '금강경오가해'를 인용해 그의 공사상은 有, 無를 초월한 인간의 생사관을 해결하기 위한 깨달음의 목적을 향한 인식체계의 논리구조를 담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함허의 불교사상은 당시대에 유학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삶의 근원적 문제를 풀기 위한 그의 노력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허씨는 설명했다. 〈우〉

성불사지 석불입상·장승 도문화재·민속자료 지정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소재 성불사지 석불입상과 석장승이 지난달 28일 강원도에 의해 유형문화재 제115호와 민속자료 제5호로 각각 지정됐다.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석불입상은 높이 214㎝ 죽좌높이 35㎝ 크기의 고려초기 미륵불이며, 석장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조선시대 전기~중기 사이에 조성된 호법장승으로 몸체까지 조각한 톡특한 형태의 것이다.

창녕문화재 전시관 개관

창녕에서 출토된 문화재의 조사, 연구, 수집, 보존과 공개 관람 등을 위한 창녕문화재전시관이 지난 2일 개관했다.

야외전시장 전시실, 시청각실 유물전시실 등을 갖춘 전시관은 총 2백40종 7백6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중 1백66종 2백76점을 전시하고 있다.

선우도량 제10회 수련결사
「 미래사회와 승가상 」

귀의 삼보하옵고,
불조의 혜명을 이어받아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창립된 좋은 벗들의 모임, '올바른 승가상 확립'과 '승풍진작'을 지향하는 선우도량의 제10회 수련결사가 '미래사회와 승가상'을 주제로 실상사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열릴 수련결사는 무성한 논의로만 피져있는 미래사회에서 지향되어야 할 승가상은 무엇이고, 佛典과 역사속에서 변천되어 온 승가상은 어떠했는가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전법·수행·연구의 장에서 바쁘시겠지만 수희동참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미래사회와 승가상
·구성 : 기조강연(홍선스님)
발제1-불전에 나타난 승가상(혜담스님)
발제2-불교사에 나타난 승가상(법성스님)
발제3-미래의 승가상에 대한 모색(종림스님)
·때 : 불기2540(1996)년3월27~29일(음력2월9~11일)
·접수시간 : 3월27일 오후 2시
·곳 : 근본도량 지리산 실상사
·대상 : 비구스님
·참가비 : 3만원
·준비물 : 대가사
·문의처 : 실상사(0671)34-3772, 34-3757
서울사무소(02)742-6916, (팩스)742-6917

선우도량 공동대표
혜담 도법 현봉 합장

광명선원 제 2 회 능엄법회

월운 큰 스님의 증명하에 제2회 능엄법회를 열어 법장스님(동국역경원 역경위원)을 강사로 모시고 능엄세계를 펼쳐보고자 하오니 두루 동참 바랍니다.

· 입재 : 불기2540년 3월13일(수) 오전10시
· 입제법문 : 월운 큰 스님
· 강의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7개월 과정
· 강의료 : 7만원
· 문의 : (02) 584 - 1108 · 587 - 3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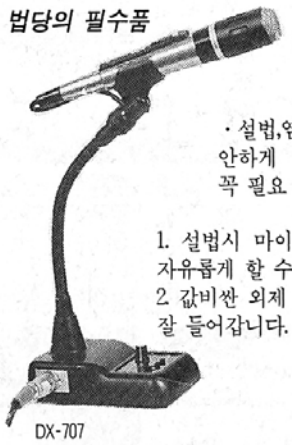
봉 선 사 서울포교당 방배동 광명선원

중국명문한의대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연수

· 대상 : 한의사, 한약사, 스님, 불자
의학, 침,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 기간 : 8박9일
· 주요연수내용 : 중풍, 당뇨병, 좌골신경통
침치료, 지압치료법, 기공 등
· 연수후 : 박사과정 연수 수료증 수여
(침구, 기공)
· 인원 : 15명 이내
· 출발일 : 1996년 3월 21일 (목요일)
· 남경중의약대학 : 중국 남경 660-7129

· 문의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TEL. (02) 511 - 2026 · 2027
511 - 2028 · 1080
FAX. (02) 511 - 1080

법당용 특수 마이크
법당의 필수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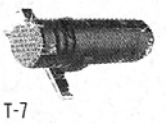


· 설법,염불을 오랫동안 편안하게 하고싶은 스님들께 꼭 필요 합니다.
1. 설법시 마이크에서 소리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값비싼 외제 마이크보다 멀어서 잘 들어갑니다.

DX-707
분리형 스텐드 마이크
· 공급가:180,000원

염불전용

TM-108 (신제품)
목걸이 마이크
· 공급가:85,000원



T-7
경전강좌,설법 각종법회용
유선핀 마이크
· 공급가:45,000원

본사 : 158-09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26-7
전화 : (02)697-9976, 605-3235 FAX : (02)695-9676
영등포전시장 전화 : 671-9356~7 유코전자